

## 공개된 정보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30분경, 유명 영화감독 최승배가 스튜디오 촬영장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시체는 천장 높이 설치된 조명 레일에 매달려 있었고, 목에는 두꺼운 전선이 감겨있었다. 주변에 사다리나 높이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 같지는 않다. 이날은 심야까지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촬영 중인 영화는 '뒤틀린 정원'. 교외의 대저택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내용이다. 최근 영화계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명배우 조영신이 주연으로 결정되며 촬영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최승배가 죽은 것은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다. 촬영 중에는 스태프가 다 모여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단역 배우 김주원, 발견 시각은 11시 30분이다. 스튜디오는 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고, 넓은 장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이 드나들었을 리는 없다. 현장의 인원 중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10시	조민형, 최승배의 심부름으로 촬영장을 나감
	이수현, 컨테이너로 출발
	김주원, 주차장에서 대본 연습
오후 10시 10분	이수현, 컨테이너에서 쉬다가 잠들
오후 10시 30분	조영신, 숙소로 출발
오후 10시 40분	조민형, 철물점 도착
오후 10시 50분	조민형, 사다리 구입, 다시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조영신, 숙소 도착
오후 11시 10분	조영신,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30분	김주원, 촬영장에 미리 왔다가 최초로 시체 발견
	조민형, 촬영장 복귀
	이수현, 비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뒤 촬영장 도착
오후 11시 40분	조영신, 촬영장 복귀



조민형(30)



## 조민형(30) 남

→ 당신은 범인이다.

\* 승리조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본다.

\* 완벽한 승리조건: 당신이 조승원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본다.

### 당신의 행적

당신은 친형인 조승원의 복수를 위해 최승배 감독을 살해했다. 10년 전 형은 최 감독 밑에서 조감독으로 일하며 '캔디걸'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고, 그 작업이 끝나면 새로운 작품의 감독을 맡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형을 특히 따랐던 당신은 때때로 형을 따라 촬영 현장에 놀러 갔고, 당시 첫 주연을 맡았던 조영신의 사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캔디걸'의 마지막 촬영 날인 12월 1일, 승원은 돌연 목을 매고 자살했다.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최승배, 현장에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 당신은 데뷔를 앞둔 형의 돌연한 자살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형의 죽음이라는 현실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형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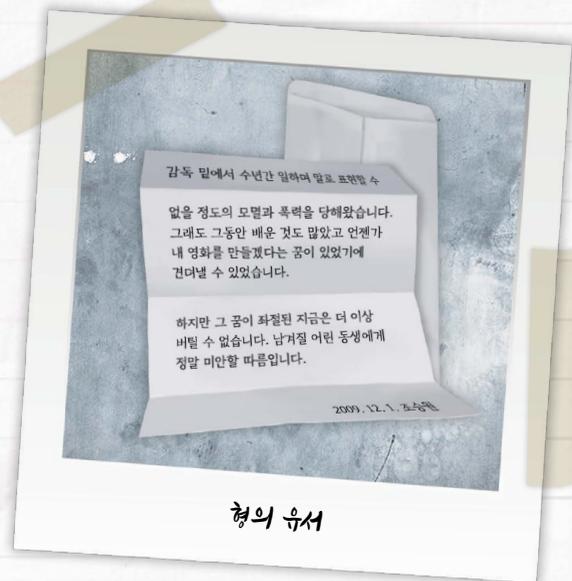
당신은 그 후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형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반쯤은 좋아했던 형의 흉내를 내는 기분도 있었다. 당신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고, 때로는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써서 최승배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최승배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당신은 일을 해나가면서 점점 최승배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최승배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폭언을 뱉어냈고, 스태프들을 하인처럼 부렸다. 그리고 올해 초, 그 오만함은 구타로 발전했다. 그날 당신은 당일 사용할 대본을 잃어버려 촬영을 지연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불같이 노한 최승배는 당신을 폭행했고, 당신은 최승배의 분노를 몸으로 받아들이며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폭행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당신은 그 사건 이후 생긴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병원에 갈 때마다 정신적 고통은 더해갔다. 담당의는 폭행 건에 대해서 별반 관심도 없었고, 당신에게 형에 대해서만 계속 물었다. 마치 잊혀진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듯이. 그는 과거를 담당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형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하란 말인가? 무엇으로?

그리고 얼마 안 가, 당신은 신원미상의 인물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이 말하길, 형이 자살한 것은 감독 내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이고 그 배후에는 최승배가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이후 당신은 최승배 감독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최승배 감독의 스마트폰 비밀번호와 책상 서랍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최승배의 책상 서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면서 그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단서는 바로 최승배가 숨겨둔 형의 유서. 당신은 분노에 휩싸였지만, 일단 침착하게 유서를 제 자리에 돌려놓았다. '형에게 보답할 방법'은 복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형의 10주기인 12월 1일만큼 복수에 어울리는 날도 없지만, 그날은 촬영 스케줄이 없었다.

당신은 지난번처럼 촬영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본과 소품용 사다리를 숨겼다. 11월 30일에 예정되었던 촬영은 이 때문에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사건 당일 최승배 감독은 당신에게 없어진 사다리를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당신은 철물점에 가는 척 트럭을 몰고 촬영장 밖으로 나가, 미리 숲에 숨겨두었던 사다리를 챙겨 걸어서 촬영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0시 30분경 촬영장에 혼자 있던 최승배의 목을 가는 전선으로 졸랐다.

최승배는 전선을 붙잡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버둥거렸지만, 결국 힘을 잃고 숨을 거두었다. 당신은 사다리를 이용해 죽은 최승배를 조명 레일에 매달고 교살에 사용한 전선을 주머니에 챙긴 다음, 숲길에 숨겨둔 트럭을 다시 주차장으로 끌고 왔다. 주차장에는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다. 사다리를 트렁크에 넣은 후 마지막으로 분리수거장에 간 당신은, 범행도구인 전선과 그동안 영화 아이디어들을 적어두었던 수첩을 찢어버리고 제1 발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의 유서